

1. ④

제원(諸元): 기계류의 치수나 무게 따위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數的) 지표.

① 개념(掛念): 마음에 두고 걱정하거나 잊지 않음

② 발취(拔萃): 책, 글 따위에서 필요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가려 뽑아냄. 또는 그런 내용.

③ 와해(瓦解): 기와가 깨진다는 뜻으로, 조직이나 계획 따위가 산산이 무너지고 흩어짐을 이르는 말.

2. ③

남편의 누나는 '형님'으로 부른다. 또한 아내의 오빠 또한 '형님'으로 부른다.

①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아주버니)'으로 불러야 한다.

② 시부모에게 남편을 '오빠'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아범, 그이, 아비 등으로 불러야 한다.

③ '부인'은 남의 '아내'를 부르는 높임말이므로 자기 아내를 낮추어 지칭할 경우에는 '아내, 집사람, 안사람'으로 지칭해야 한다.

3. ①

셋째 문단에서 개인적 계몽에 성공한 이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발표하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계몽 정신은 자연스레 널리 전파될 것이고 사람들은 독립에의 공포심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는 성년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므로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② 첫 번째 문단

③ 네 번째 문단

④ 두 번째 문단

4. ②

이 시는 '낙화'라는 자연 현상으로 인간의 이별을 말하고 있는 작품이다. 다시 말해 결별(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면 영혼이 성숙된다는 것을, 꽃이 진 후 열매를 맺는 것으로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5. ③

'정처 없다'는 보통 '있다/없다'가 가능할 때에는 띄어 쓰고, '없다'만 있을 경우에는 붙여 쓴다. 예) 끝없다, 텅없다, 끊임없다, 보잘것없다, 하잘것없다 등

'떠돌아다니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① 엮히고 설켜서 → 엮히고설켜서

② 알아 주는 → 알아주는, 너 밖에 → 너밖에

④ 속절 없는 → 속절없는

6. ③

방약무인(傍若無人):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

7. ③

'엘로, 카디건, 비전'은 맞고, '엘로우, 가디건, 비전'은 틀리다.

ㄷ은 랍스터/로브스터, ㄹ은 컨테이너로 써야 한다.

8. ③

'태도'는 '모습 태(態)', '법도 도(度)'로 써야 한다.

9. ④

한글과 한자어의 유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게재(揭載)'는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음을 뜻하고, '게시(揭示)'는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을 뜻하므로 '게재'가 아니고 '게시'라고 해야 한다.

①에서 '달다'는 '사람을 동행하거나 거느리다'의 뜻이므로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 거느려 함께 함'을 뜻하는 '대동(帶同)'으로 쓸 수 있다.

②에서 '달다'는 '장부에 적다'이므로 기록(記錄)으로 쓸 수 있다.

③에서 '달다'는 '어떤 기기를 설치하다'이므로 설치(設置)로 쓸 수 있다.

10. ③

선택지를 보아도 알 수 있지만 (다)가 이 글의 주지 문장이고, (마)는 (다)의 뒷받침 문장이다. 또한 (라)를 보면 '하지만' 최소한의 여건을 만족하면서 정신적 창조와 인격적 성장을 꾀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나)는 (라)의 부연 설명이고,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소유에서 오는 행복을 소중히 여김을 비판하는 문장이다.

11. ④

'타이타닉 호 속에는 판에 박은 일상사가 있습니다.'는 문장 뒤에 ㉠은 타이타닉 호 속의 일상사가 나왔으므로 '예를 들면'이 적절하고, ㉡ 뒤에는 타이타닉 호의 바깥에는 바다가 있고, 빙산이 있다고 했으므로 아무런 현실이 없다고 한 앞의 내용과 상반되므로 '그렇지만'이 와야 한다. ㉢ 뒤에는 앞 문장과 유사한 내용이므로 '말하자면'이 적절하다.

12. ②

㉠의 앞에는 황사의 좋은 점을 말했고, ㉡의 뒤에는 황사가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했으므로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 또는 '하지만'이 적절하다.

13. ①

첫 번째 문단에서는 18~19세기의 혁신적 지성을 설명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20세기에 이르러 혁신적 지성이 기술적 지성으로 변질됨을 비판하였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지성의 임무'와 그것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①이 알맞다.

14. ①

‘미타찰에서 만날 나(월명사)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고 하였기 때문에 죽은 누이와의 재회를 소망한다고 한 ①이 알맞다.

15. ②

‘반영하기’는 상대의 생각을 수용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청자의 적극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므로 ②가 알맞다.

①과 ④은 아이의 생각을 수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하기와 관련이 없다. ③은 아이의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16. ②

용언을 명사처럼 보이게 하는 명사형 전성어미와, 용언을 명사로 바꿔 주는 지배접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②은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형용사이고, 나머지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명사이다.

17. ②

㉠, ㉡은 앞에 오는 ‘형님’을 바로 받는 3인칭 재귀 대명사이다.

18. ①

㉢ 피카소와 브라크는 ㉡세잔의 영향을 받아 ㉠르네상스 화가들의 원근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실험했다고 했으므로 ①이 알맞다.

19. ③

조사 ‘는, 을’은 체언 등에 붙어 쓰이는 단어가 맞다. 그러나 이 글에서 조사는 체언 등에 붙어서만 쓰이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고 했으므로 ③은 알맞지 않다.

20. ④

㉣은 행복동 주민들의 항의와 저항의 목소리이다. 그런데 뒷부분에서 ‘쓸데없는 것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다.’고 했으므로 삶이 개선될 것을 암시한다는 것은 알맞지 않다.